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2021년 어린 ‘꽃게’ 방류(1차) 완료 보고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http://fish.incheon.go.kr>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2021년 어린 ‘꽃게’ 방류(1차) 완료 보고

해양 환경변화 및 남획으로 인해 수산자원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우량의 꽃게 치계를 관내 어장에 방류함으로써 수산자원 회복 및
자원량을 증대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I 방류 개요

- 방류일시 : 2021. 06. 09(수) 15:00(여섯물, 고조 16:21 750)
- 방류품종 : 어린 꽃게 1,126,000마리
- 종자크기 : 갑폭 1.0cm 이상
 - ※ 관련근거 : 2021년 수산종자 방류지침
- 방류해역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해역
- 방류방법 : 활어차 및 여객선(세종1호)으로 방류지역까지 이동 후 선상방류

II 참석자

- 인 천 시 : 수산자원연구소장외 5명, 수산과장외 2명
- 관련기관 : 중구 농수산과장외 2명, 을왕어촌계장, 운서어촌계장
 - ※ 코로나19 상황으로 방류행사 미실시, 참여 인원 최소화 진행

Ⅲ 방류 수량 검수

○ 표본 측정 결과

- 평균 갑폭 1.0cm내외 치게 30마리/1.27g 마리당 0.042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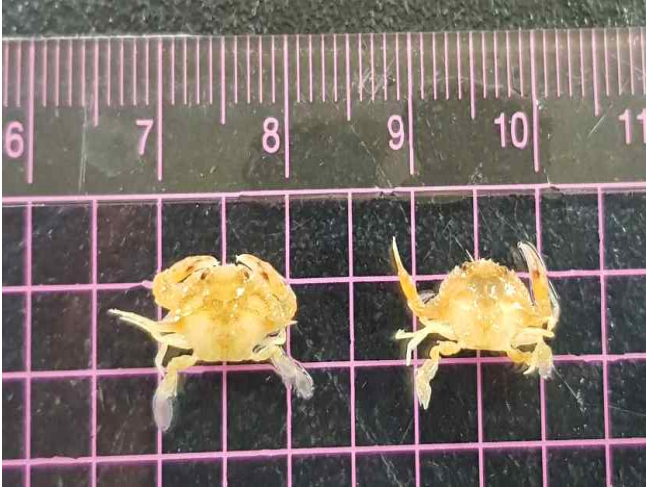
○ 방류수량 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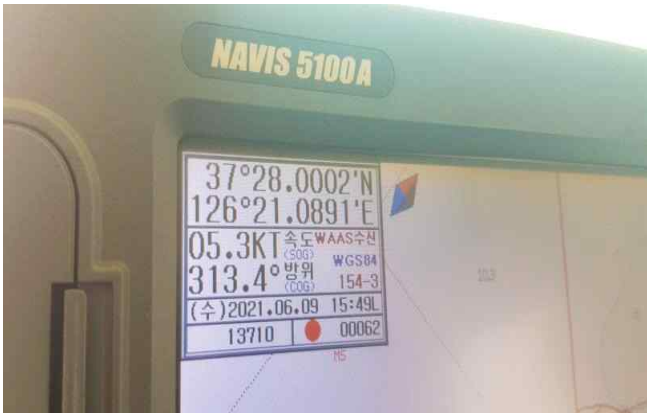
계량 회수(회)	총무게(g)	개체당 평균 무게(g)	방류수량(미)
190	47,310	0.042	1,126,000

Ⅳ 방류 해역도

○ 어린 꽃게 방류 해역 : 인천시 중구 을왕해역







1. 인천시, 어린꽃게 100만마리 방류-안국경제
2. 인천 용유도 해역 어린꽃게 100만마리 방류-인천투데이
3. 인천시, 중구 을왕해역에 어린 꽃게 방류-세계타임즈
4. 인천시, 중구 을왕해역에 어린 꽃게 방류-미디어투데이
5. 인천시, 중구 을왕해역에 어린 꽃게 방류-국민투데이
6. 인천시, 을왕해역에 어린 꽃게 100만 마리 방류-인천 in
7. 인천시, 중구 을왕해역에 어린 꽃게 100만 마리 방류-디스커버리뉴스
8. 인천시, 을왕해역에 어린 꽃게 100만 마리 방류-e대안경제
9. 인천시, 을왕해역에 어린 꽃게 방류-연합시민의 소리
10. [포토] “우랑 꽃게로 짜라서 돌아오렴” -경인일보
11. [경기포토] 인천시수산자원연구소 꽃게 치어 방류-경기일보
12. [중부포토] 어린꽃게 방류 행사-중부일보

인천시, 어린꽃게 100만마리 방류

입력 2021-06-09 08:59 수정 2021-06-09 08:59



어린 꽃게 모습. 인천시

인천시는 서해안 꽃게자원 회복을 위해 9일 을왕해역에 어린꽃게 100만 마리를 방류한다.

어린 꽃게는 지난 5월 중순 부화한 것으로 갑폭 1.0cm 이상의 우량 종자들이다.

꽃게들은 올해 어획이 가능한 크기로 성장해 내년 봄 수확이 예상된다.

꽃게는 수심 100m 이내 연안해역의 모래 및 모래진흙에 서식하며 주 산란기는 6~7월이다.

인천은 전국 꽃게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던 국내 제일의 꽃게 산지였지만 매년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다.

시는 꽃게 90만, 참조기 30만, 주꾸미 50만, 갑오징어 15만 마리를 내달 안에 추가 방류할 계획이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인천 용유도 해역 어린꽃게 100만마리 방류

▲ 이형우 기자 | 2021.06.09 09:37

인천수산자원연구소, 참조기·바지락·주꾸미 등 추가방류 계획

인천투데이=이형우 기자 |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가 서해 꽃게 자원회복을 위해 어린 꽃게 100만마리를 방류했다.

연구소는 중구 용유도 해역에 자체 생산한 어린 꽃게 100만마리를 방류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수산자원연구소가 자체 생산한 어린 꽃게. (사진제공 인천시)

이번에 방류한 어린 꽃게는 지난 5월 중순 부화해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전염병 검사를 받은 갑폭 1cm 이상의 우량 종자들이다. 어린 꽃게는 내년 봄부터 어획이 가능한 크기로 자라날 전망이다.

인천은 국내 꽃게 생산량의 40%를 차지한 최대 꽃게 산지였지만 매년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다. 연구소는 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어린 꽃게 방류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연구소는 올해 4월 점농어 26만마리를 서해안에 방류했다. 또 꽃게 90만마리와 참조기 30만마리, 바지락 60만마리, 주꾸미 50만마리, 갑오징어 15만마리를 추가로 방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 고유종인 전복과 참담치를 보존하기 위한 시험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권오훈 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어린 꽃게 방류사업이 어업인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복과 참담치 등 인천 특산 품종을 연구해 풍부한 수산자원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우 기자 incheontoday11@gmail.com

- 꽃게 자원량 회복을 위해 100만마리 방류 -

[세계로컬핫뉴스] 인천시, 중구 을왕해역에 어린 꽃게 방류

우경원 news@thesege.com | 2021-06-09 10:19:41

[인천=세계타임즈 우경원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서해안 꽃게 자원 회복을 위해 중구 을왕해역에 유관기관 및 을왕어촌계장 등 지역 어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생산한 어린 꽃게 10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꽃게는 지난 5월 중순 부화한 것으로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병성감정기관)의 전염병 검사를 통해 건강한 종자로 판정된 갑폭 1.0cm 이상의 우량 종자들이다.



▲ 어린 꽃게 사진

어린 꽃게는 내년 봄부터 어획이 가능한 크기로 자라게 되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꽃게는 수심 100m 이내 연안해역의 모래 및 모래진흙에 서식하며 주 산란기는 6~7월이다. 인천은 전국 꽃게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던 국내 제일의 꽃게 산지였지만 매년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어 꽃게 자원량 회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방류사업이 필요한 품종이다.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 4월 점농어 26만마리를 인천 연안에 방류한 것을 시작으로 꽃게 90만마리, 참조기 30만마리, 바지락 60만마리, 주꾸미 50만마리, 갑오징어 15만마리를 추가 방류할 계획이다.

권오훈 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경제성 어종 위주의 지속적인 방류사업이 어업인 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전복, 참돔치 등 인천의 특산 품종 시험연구로 풍부한 수산자원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중구 을왕해역에 어린 꽃게 방류

꽃게 자원량 회복을 위해 100만마리 방류

기사입력시간 : 2021/06/09 [09:34:00]

안정태 기자



어린 꽃게 사진

【미디어투데이=안정태 기자】 인천광역시는 서해안 꽃게 자원 회복을 위해 중구 을왕해역에 유관기관 및 을왕어촌계장 등 지역 어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생산한 어린 꽃게 10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꽃게는 지난 5월 중순 부화한 것으로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병성광정기관)의 전염병 검사를 통해 건강한 종자로 판정된 갑록 1.0cm 이상의 우량 종자들이다.

어린 꽃게는 내년 봄부터 어획이 가능한 크기로 자라게 되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꽃게는 수심 100m 이내 연안해역의 모래 및 모래진흙에 서식하며 주 산란기는 6~7월이다. 인천은 전국 꽃게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던 국내 제일의 꽃게 산지였지만 매년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어 꽃게 자원량 회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방류사업이 필요한 품종이다.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 4월 정농어 26만마리를 인천 연안에 방류한 것을 시작으로 꽃게 90만마리, 참조기 30만마리, 바지락 60만마리, 주꾸미 50만마리, 갑오징어 15만마리를 추가 방류할 계획이다.

권오훈 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경제성 어종 위주의 지속적인 방류사업이 어업인 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전복, 참돔 등 인천의 특산 품종 시험연구로 풍부한 수산자원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중구 을왕해역에 어린 꽃게 방류

강대혁 기자 | 승인 2021.06.09 09:34

꽃게 자원량 회복을 위해 100만마리 방류



어린 꽃게 사진

[국민투데이 강대혁 기자] 인천광역시 서해안 꽃게 자원 회복을 위해 중구 을왕해역에 유관기관 및 을왕어촌계장 등 지역 어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생산한 어린 꽃게 10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꽃게는 지난 5월 중순 부화한 것으로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병성감정기관)의 전염병 검사를 통해 건강한 종자로 판정된 갑폭 1.0cm 이상의 우량 종자들이다.

어린 꽃게는 내년 봄부터 어획이 가능한 크기로 자라게 되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꽃게는 수심 100m 이내 연안해역의 모래 및 모래진흙에 서식하며 주 산란기는 6~7월이다. 인천은 전국 꽃게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던 국내 제일의 꽃게 산지였지만 매년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어 꽃게 자원량 회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방류사업이 필요한 품종이다.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 4월 점농어 26만마리를 인천 연안에 방류한 것을 시작으로 꽃게 90만마리, 참조기 30만마리, 바지락 60만마리, 주꾸미 50만마리, 갑오징어 15만마리를 추가 방류할 계획이다.

권오훈 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경제성 여종 위주의 지속적인 방류사업이 어업인 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전복, 참돔치 등 인천의 특산 품종 시험연구로 풍부한 수산자원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강대혁 기자 010@kukmini.com

인천시, 을왕해역에 어린 꽃게 100만 마리 방류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6.09 11:19

지난달 중순 부화한 갑폭 1.0cm 이상 우량 증자
내년 봄부터 어획 가능, 어업인 소득 증대 기대
향후 참조기, 바지락, 주꾸미, 갑오징어 추가 방류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가 자체 생산해 방류한 어린 꽃게(사진제공=수산자원연구소)

인천시가 중구 을왕해역에 어린 꽃게를 방류했다.

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을왕해역에 자체 생산한 어린 꽃게 10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방류한 꽃게는 지난달 중순 부화한 갑폭 1.0cm 이상으로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병성감정기관)의 전염병 검사를 거쳐 건강한 증자로 판정됐다.

이들 어린 꽃게는 내년 봄부터 어획이 가능한 크기로 자라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꽃게는 인천이 연평도를 중심으로 국내 제일의 산지였지만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지속적 방류가 필요한 고소득 품종이다.

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4월 점농어 26만 마리에 이어 이날 꽃게 100만 마리를 방류했으며 연내 꽃게 90만 마리, 참조기 30만 마리, 바지락 60만 마리, 주꾸미 50만 마리, 갑오징어 15만 마리를 추가 방류할 계획이다.

권오훈 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경제성이 높은 어종 위주로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복, 참돔치 등 고부가가치 특산품종의 시험연구를 통해 인천 앞바다의 수산자원을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in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빈 기자

인천시, 중구 을왕해역에 어린 꽃게 100만마리 방류

꽃게 자원량 회복과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기여 예상

기사입력시간 : 2021/06/09 [09:24:52]

김두영 기자



▲ 어린 꽃게 사진

인천광역시 서해안 꽃게 자원 회복을 위해 중구 을왕해역에 유관기관 및 을왕어촌계장 등 지역 어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생산한 어린 꽃게 10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꽃게는 지난 5월 중순 부화한 것으로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병성감정기관)의 전염병 검사를 통해 건강한 종자로 판정된 갑폭 1.0cm 이상의 우량 종자들이다.

어린 꽃게는 내년 봄부터 어획이 가능한 크기로 자라게 되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꽃게는 수심 100m 이내 연안해역의 모래 및 모래진흙에 서식하며 주 산란기는 6~7월이다. 인천은 전국 꽃게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던 국내 제일의 꽃게 산지였지만 매년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어 꽃게 자원량 회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방류사업이 필요한 품종이다.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 4월 정농어 26만마리를 인천 연안에 방류한 것을 시작으로 꽃게 90만마리, 참조기 30만마리, 바지락 60만마리, 주꾸미 50만마리, 갑오징어 15만마리를 추가 방류할 계획이다.

권오준 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경제성 어종 위주의 지속적인 방류사업이 어업인 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전복, 참돔치 등 인천의 특산 품종 시험연구로 풍부한 수산자원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을왕해역에 어린 꽃게 100만마리 방류

기사입력 2021-06-09 14:24:15

꽃게 자원량 회복 위해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9일 서해안 꽃게 자원 회복을 위해 중구 을왕해역에 유관기관 및 을왕어촌계장 등 지역 어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생산한 어린 꽃게 100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꽃게는 지난 5월 중순 부화한 것으로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전염병 검사를 통해 건강한 종자로 판정된 갑폭 1.0cm 이상의 우량 종자들이다.

어린 꽃게는 내년 봄부터 어획이 가능한 크기로 자라게 되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꽃게는 수심 100m 이내 연안해역의 모래 및 모래진흙에 서식하며 주 산란기는 6~7월이다. 인천은 전국 꽃게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던 국내 제일의 꽃게 산지였지만 매년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어 꽃게 자원량 회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방류사업이 필요한 품종이다.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 4월 점농어 26만마리를 인천 연안에 방류한 것을 시작으로 꽃게 90만마리, 참조기 30만마리, 바지락 60만마리, 주꾸미 50만마리, 갑오징어 15만마리를 추가 방류할 계획이다.

권오훈 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경제성 어종 위주의 지속적인 방류사업이 어업인 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전복, 참돔치 등 인천의 특산 품종 시험연구로 풍부한 수산자원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인천=박흥서기자 chs0506@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e대한경제'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콘텐츠가 '내손안에' e대한경제

인천시, 을왕해역에 어린 꽃게 방류

꽃게 자원량 회복을 위해 100만마리 방류

뉴스일자: 2021년06월09일 14시13분

[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서해안 꽃게 자원 회복을 위해 중구 을왕해역에 유관기관 및 을왕어촌계장 등 지역 어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생산한 어린 꽃게 10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꽃게는 지난 5월 중순 부화한 것으로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병성감정기관)의 전염병 검사를 통해 건강한 종자로 판정된 갑폭 1.0cm 이상의 우량 종자들이다.

어린 꽃게는 내년 봄부터 어획이 가능한 크기로 자라게 되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꽃게는 수심 100m 이내 연안해역의 모래 및 모래진흙에 서식하며 주 산란기는 6~7월이다.

인천은 전국 꽃게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던 국내 제일의 꽃게 산지였지만 매년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어 꽃게 자원량 회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방류사업이 필요한 품종이다.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 4월 점농어 26만마리를 인천 연안에 방류한 것을 시작으로 꽃게 90만마리, 참조기 30만마리, 바지락 60만마리, 주꾸미 50만마리, 갑오징어 15만마리를 추가 방류할 계획이다.

권오훈 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경제성 어종 위주의 지속적인 방류사업이 어업인 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전복, 참돔지 등 인천의 특산 품종 시험연구로 풍부한 수산자원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홍성잔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뉴스클리핑은 <http://cunews.net>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첨단기

#TRENDING
경인핫이슈



반목되는
아동학대



코로나19 팬데믹
충격과 확산



수도권
교통격명

뉴스 > 수도권 > 경인포도

[포토] "우랑 꽃게로 자라서 돌아오렴"

김용국 기자 | 발행일 2021-05-30 제1면



9일 인천시 옹진 영종도 인근 해상에서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 연구원이 미안 꽃게를 양육하고 있다. 미안 양돈
관 미안 꽃게는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지난 5월 중순 무제한 포획으로 인해 1.0cm 미만의 우랑 총지 100만여
리를 양육했다. 2021.5.9 /김용국 기자 yong@kyoonline.com

인천시수산자원연구소 꽃게 치어 방류 [경기포토]



인천



경기
24°C
미세먼지

**시민과
함께
만드는 뉴스**

기사예보



어린꽃게 방류 행사



충북일보